

보도자료

2023. 08. 31.(목)



충북대-한국교통대 단계적 통합 원칙 합의 - 단계적 통합 원칙 합의서 체결식 개최 -



고창섭 충북대 총장(좌), 윤승조 한국교통대 총장(우)

- 충북대학교(총장 고창섭)와 한국교통대학교(총장 윤승조)는 8월 31일 (목) 충북대 대학본부 5층 회의실에서 양 대학의 단계적 통합 추진 원칙에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.
- 이 날 체결식은 고창섭 충북대 총장, 윤승조 한국교통대 총장과 양 대학 간부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- 이 날 체결한 단계적 통합 추진 원칙 합의서의 주요 항목은 ▲공유와 연합을 거치는 단계적 통합의 시너지 극대화 ▲1대1 수평적 통합과 현

구성원 최대 수혜 ▲구성원 동의 기반 원칙과 유사학과 화학적 통합 ▲통합 교명의 미래지향적 협의 제정 ▲지역혁신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캠퍼스 재배치 및 특성화 등이다.

- 이번 통합 원칙 합의는 지난 5월 상호 협력과 양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‘상생발전협약’을 시작으로 수 차례 양 대학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성과이며, 글로벌대학30 사업 실행계획서에 혁신과제의 추진일정과 통합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여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.
-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은 “이번 단계적 통합 원칙 합의를 계기로 통합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며 국가거점 국립대학교로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